

# “여수산단 SK 화물휴게소 정비업체 입주 안돼”

## 중소 정비업체 강력 반발... 오늘 기자회견 예정

여수산단단지 내에 대기기업인 SK가 운영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종합 정비업체가 들어서려 예정에 있어 주변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정비업체가 과다하게 들어서 출혈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기기업이 운영하는 정비업체가 들어설 경우 모두 고사할 것이라며 최근 여수시의회 앞으로 민원을 접수했고 17일에는 반대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범사업으로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을 추진, 지난 2010년 SK에너지 주식회사를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애초 서류에는 ‘정비업’으로 표기돼 있다가 협의 이후 ‘정비업’으로 변경되는 등 사업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김유화 의원 등에 따르면 여수시 추삼동 56-6번지 일원에 건설 중인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BTO(Build Transfer Operate, 민간이 시설 설치 후 일정

간 위탁운영)사업으로 SK에너지가 1년에 1억5600만원씩 시에 내고 26년간 운영하게 된다. 4만9845㎡ 면적의 이 휴게소에는 세차장, 주차장, LPG 주유소, 정비업체, 식당, 화물정보센터 등이 들어서 예정이다. 오는 8월 말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의회 김유화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2009년 여수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 관련 법률자문 서류부터 2011년 의회에 보고한 교통행정과 자료에도 경쟁비로 돼 있었는데, 실시협약 이후 ‘경’이라는 글자가 빠지고 정비동이라고만 표기된다”며

“따라서 애초 부분 정비업으로 추진됐다 나중에야 종합정비업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수지역 중소기업체들은 대기기업 진출에 따른 업계 고사를 우려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수지역은 지난달 말 현재 종합정비업소 20개, 소형정비업소 14개이며, 부분정비업소가 206개로, 업체 평균 자동차 관리 대수가 454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같은 과다 공급 상태에서 대기기업이 운영하는 정비업체가 들어서면 가격이나 서비스 경쟁에서 밀리거나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수공업사협회 김금철 회장은 “가장 좋은 위치의 SK화물휴게소에 종합정비업체가 허가되면 여수지역 중소기업체들은 다 죽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여수시 관계자는 “종합정비업체가 아닌 부분정비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SK측과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애로사항이 있는 게 사실이다”며 “SK측이 화물터미널 건설 공정을 35%에 달한다며 변경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연분홍 철쭉보러 보성 일림산 오세요

### 다음달 4일 철쭉제

보성군이 제39회 보성다향제 녹차 대추제를 앞두고 오는 5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전국 최대의 철쭉 군락지인 일림산(사진)에서 철쭉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철쭉제제를 시작으로 고향장터 운영, 내일아트, 향토염색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은 물론 편백나무 숲이 어우러진 계곡에서 전자현악기, 색소폰 연주 등 숲속의 작은 연주회를 열어 등산

객 및 관광객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줄 예정이다.

일림산은 높이가 667.5m로, 호남 정맥이 제암산과 사자산 사이를 거쳐 남해로 들어가기 전에 위치한 산이다. 북서쪽으로는 사자산과 제암산으로 뻗은 호남정맥, 남동쪽 산 아래로는 득량만에서 울포술밭해변까지 아름다운 풍광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일림산 철쭉은 100ha의 군락지를 이루는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한다.

### 지리산 국립공원 생태체험 운영

지리산국립공원 남부사무소는 16일 “지리산 국립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이날부터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이름은 ‘찾아가는 국립공원 환경교실’과 ‘속속! 속속! 지리산 숲 놀이터’ 등으로, 구례교육지원청의 협조로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총 13개 교육기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밖에 지역아동센터 학생 대상, 주 5일 수업에 맞춰 가족단위 탐방객을 위한 생태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자세한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http://jiri.knps.or.kr)를 참고하면 된다.

/구례=이진희기자 ik5826@



### 바지락 캐는 아낙들

봄기운이 물씬한 4월, 여수시 소리면 정침마을에서 마을 아낙들이 바닷물이 빠져나간 갯벌에서 부지런히 바지락조개를 캐고 있다. 여수의 바지락조개는 시원한 국물 맛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한옥형 유스호스텔 ‘순천만에코촌’ 오늘 준공

### 정원박람회장 찾는 학생·관광객 숙박 도움

전국 최초 한옥형 유스호스텔인 순천만에코촌이 17일 준공식을 갖는다.

순천시는 16일 “지나해 2월 착공한 순천만에코촌이 1년2개월의 공사를 거쳐 준공돼 2013순천국제정원박람회

장을 앞두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지 9740㎡(2946평)에 연면적 1760㎡(532평)인 에코촌은 생태환경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생태관 1동과 각종 세미나 및 관리를 목적으로 예

정, 협오시설인 분뇨처리장 부지에 한옥형 숙박시설을 짓는 색다른 의미를 부여해 주목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한옥형 유스호스텔이 준공돼 정원박람회장을 찾는 학생 및 관광객 등에게 체류형 숙박시설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에코촌은 숙박시설은 물론 생태환경 교육 공간으로도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시 16일 “시민들의 근거리 교통수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공영 온누리 자전거 터미널 4개소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

추가 설치 장소는 정원박람회장, 서면강정수변공원, 연향3지구, 제일대 앞 등 4개소다. <사진> 온누리 자전거를 이용코자 하는 시

## 순천, 온누리 자전거 터미널 4곳 추가 설치

민들게서는 시 홈페이지(http://bike.sc.go.kr)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온누리 자전거 터미널에서 곧바로 휴대폰 결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1일 1000원, 1주일 2000원, 한 달 3000원, 1년 2만원 등이다.

순천시는 16일 “시민들의 근거리 교통수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공영 온누리 자전거 터미널 4개소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

추가 설치 장소는 정원박람회장, 서면강정수변공원, 연향3지구, 제일대 앞 등 4개소다. <사진> 온누리 자전거를 이용코자 하는 시



## 저소득 근로자 생활자금 이자 지원

### 군산시, 추경서 사업비 확보

군산시가 생활안정자금을 빌린 저소득근로자에게 이자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군산시는 16일 “근로복지공단과 기업사상실천 4대 전략 28개 실천과제 중 하나로 올 초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의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융자해주고 있다. 그 중 혼례비, 장례비 등 생활안정자금 등 5개 종류와 임금감소 및 체불에 따른 생계비 등으로 융

자 실행한 근로자에게 1년 거치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원하게 된다.

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은 지난 1월1일 융자를 받은 근로자까지 소급 적용되며, 저소득 근로자 60~7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실행자 중 주민등록과 사업장의 주소가 군산시민자이며, 1년에 2회 지급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자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토대로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 복지환경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전북

## 지리산에 산악철도 생긴다

### 남원시, 철도연구원과 협약... 정령치·노고단 구간에 시범 도입

지리산을 관통하는 산악철도가 들어설 전망이다.

전북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16일 고기 3가~정령치~달궁(12km), 달궁~성삼재~천은사(16km) 등 기존 지리산 관통도로에 산악철도 도입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남원시는 동부권 균형발전과 지리산권 관광도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지리산 정령치, 성삼재(노고단) 구간에 산악철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산악철도의 주요 시스템인 급경사 지역 등반 기술, 급회전 곡선구간 운행 기술 등의 신제품을 개발한 상태다.

시범 도입되는 산악철도는 기존 도로 구간에 무가선 트램 방식으로 친환경적이고 환경파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전차후 운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리산은 야생화·수목·단풍·설경 등 사계절 볼거리가 넘쳐나고 천연기념물인 반달곰의 서식처인 생태계의

보고로 산악철도를 연계하면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경쟁력이 크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남원시는 업무협약을 계기로 철도 기술개발·정책제안 등 신기술 도입을 위한 ‘지리산 산악철도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 단신

### 순창자원봉사종합센터,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

순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는 16일 순창읍 재래시장에서 재활용 나눔장터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가정 내에서 활용하지 않는 재활용가능 물품과 옷, 책, 가방, 신발, 생활용품 등을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참여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에게 고통을 함께 나누고, 경제난 극복과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자원봉사종합센터는 올해도 상반기 두 번에 걸쳐 재활용 나눔장터를 운영, 판매 수익금으로 밑반찬을 담아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할 계획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고창,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고창군은 다음달 10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군은 16일 “최근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각종 불법 옥외광고물 증가가 예상되고, 음란·퇴폐적인 광고로 미풍양속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유해광고물에 대해 중점단속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

관광객 주변 도로, 상가 밀집지역 등을 집중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기간에는 불법 현수막, 전단지 등에 대해 1차 계고장을 발부하고, 상습 부착자 또는 청소년 유해광고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 고창 녹색식품가공센터 준공

### 성송면 남창마을에

고창군은 16일 “성송면 하고리 남창마을에서 지난 13일 김호진 성송면장, 김배수 추진위원장, 이동현 대성농협장, 김갑수 이장협의회장 등 기관단체장과 출향인,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녹색식품가공센터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녹색식품가공센터는 보리순을 분말로 가공 건강식품을 개발해 주민 소득증대에 및 지속가능한 공동체 육성을 목표로 지난해 2억원을 지원받아

남창마을영농조합법인에 착공했다.

김배수 추진위원장은 “녹색식품가공센터를 통해 다양한 식품을 개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국 최고의 성공모델로 만들어 친환경 식품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남창마을은 산책로가 잘 정비된 삼태봉과 지방기념물 117호로 지정된 왕버들숲으로 유명하며, 지난 2010년에는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매봉산 등산로를 정비하고 솔밭캠핑터를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조성하는 등 주민과 관광객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 남원 곤달비 첫 출하

16일 오전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조선행씨가 자신의 친환경 곤달비 농장에서 곤달비를 채취하고 있다. 곤달비는 약간 맛이 쌉사름하고 독특한 향이 있어 불철 입맛이 없을 때 도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쌈채류로, 남원에서는 2농기가 9ha를 재배해 연간 5억4000여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16일 오전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조선행씨가 자신의 친환경 곤달비 농장에서 곤달비를 채취하고 있다. 곤달비는 약간 맛이 쌉사름하고 독특한 향이 있어 불철 입맛이 없을 때 도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쌈채류로, 남원에서는 2농기가 9ha를 재배해 연간 5억4000여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남원시 17일까지 제83회 남원춘향제(4월26일~4월30일)의 핵심 프로그램인 전통놀이 춘향그네체험행사 참가자를 모집한다.

춘향그네체험행사는 4월27~28일까지 읍면동 그네타기 경연을 개최하고 4월29~30일까지는 행사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무료체험 기회가 제공된다.

### 전주 롯데백화점서 'Buy전북 상품 기획전'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오는 17~21일 전주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Buy전북 상품과 우수제품 기획전'을 연다.

도내 20여개 식품업체에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뿐 아니라 일부 제품의 시식행사도 진행된다.

판매'를 하기로 해 소비자들의 알뜰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도민들이 내 고장 상품을 애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도내 기업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가축 질병 방역 강화

전북도가 올해 소와 돼지 등 모기를 매개로 한 질병의 발생을 막기 위해 가축방역을 강화한다.

도는 16일 “모기가 출현하기 전에 예방 접종을 끝낼 수 있도록 38만여

마리 분의 약품을 조기에 농가 등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기를 매개로 한 질병은 소는 5종(아카바네병·아이노바이러스감염증·췌장염·유행열·이바라기병), 돼지는 1종(일본뇌염)이다. /전주=박근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특히 참여 업체들이 ‘초특가 할인